

10~11일 40주년 기념 콘서트 여는 광주 1세대 포크가수 박문옥

“광주와 함께 한 음악 40년 보여 드립니다”



10일~11일 '4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여는 가수 박문옥이 광주시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자신의 녹음실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소회를 말하고 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음악하려 미술교사 그만 뒤... '소리모아'로 대학가요제 참가 노래로 5·18 전국에 알려...광주 최초 녹음실 30년째 운영

“대학시절 대학가요제, 캠퍼스공연대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왔던 음악활동이 벌써 4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평생의 절반도 훨씬 넘는 세월이죠. 제가 살아온 소소하고 소박한 삶을 보여주고자 '미담'을 주제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오는 10일~11일(오후 7시30분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예술극장2) 40년 기념 콘서트를 여는 가수 박문옥(62)의 인터뷰를 위해 '한강 이남에서 가장 오래된 녹음 스튜디오'인 소리모아스튜디오를 찾았다.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 상가 3층에 위치한 소리모아스튜디오. 30년이 다돼가는 릴 녹음기와 건반, 기타 그리고 마이크... 요즘 콘서트 준비로 늦게까지 작업을 한다는 박문옥씨가 한쪽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박문옥은 '소리모아 10년만의 외출' '운주사와 불결에 누워' '꽃잎 안연' 등 다수 음반을 냈다. '노래로 듣는 시' '김원중 작사에게' '김정식 이슬처럼' 등을 연출했다. '무등아리랑' '목련이 진들' '호수' 등 1000여곡을 발표했다.

박씨는 “고등학교 시절 통기타 붐이 일어났다. 고등학교 선생님 가운데 문화적인 마인드가 남다른 선생님이 한 분 있었다. 그 분이 항상 포크송, 캠프송을 들려줬다”며 “이후 나도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통기타를 치고 놀았다. 미술교사로 일했지만 오히려 음악이 내 전공이었다”고 말했다.

“대학 때 '소리모아 포크 트리오'를 결성했어요. 1977년 개최된 제1회 대학가요제에서 '전남대 트리오'로 참가해 '저녁 무렵'으로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대학가요제가 끝나고 학생회관에서 '빈센트 고별 리사이틀 콘서트'를 열었어요. 저만의 창작포크송을 가지고 공연했죠. 이후 광주에서 음악적인 재능을 요구하는 곳에는 무조건 참여했어요.”

박씨는 “1980년 5월에는 군대에 있었다. 제대하고 나서 민중항쟁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부채의식 때문에 5월과 관련된 행사에는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참여했다. 광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노동운동, 환경운동, 교육운동 등 음악적인 요소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약방의 감초역할을 했다”며 광주를 대표하는 가수가 된 계기를 설명했다.

박문옥은 음악인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운동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알렸다. 1980년대, 엄혹한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광주의 민중가요는 '카세트 테이프'라는 형식으로 전국 곳곳으로 전파됐다. 전파된 민중가요는 거리에서 폭풍처럼 불렀고 시위 현장에서 기폭제 역할을 해냈다.

그는 “운동가요 녹음과 테이프 제작은 당연한 순서였다. 보다 나은 음질을 위해 한강 이남에 처음으로 소리모아 스튜디오를 설립했고, 30여 년 넘는 세월동안 지역음악의 센터처럼 운영해왔다”며 “나는 그저 운동에 필요한 음악적인 요소만을 제공했던

노래를 좋아하는 대학생이었을 뿐인데 언젠가부터 운동권의 큰 거목인 양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음악을 위해 미술교사도 그만뒀어요. 친구들도 일을 그만뒀죠. 하지만 결국 각자 생업을 위해 다른 일을 찾았어요. 저만 백수건달이었죠. 그러다가 음악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 음반내는 법 등을 알려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온갖 행사에서 행사비 대신 라면 등을 받으며 공연을 하기도 했죠. 이렇게 40년간 광주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광주 최초로 녹음실을 만들었고, 광주 최초로 포크송을 만들어 포크송콘서트를 열기도 했어요. 또, 30년 순회콘서트, 40년 한정음반 등 광주 최초로 해낸 것이 많아요”

박씨는 “사실 가수 중에 유명한 걸로 따지면 내가 제일 안 유명한 거다. 하지만 광주를 떠나지 않고 꾸준히 살아온 흔적만으로도 가치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음악을 해오던 평생을 '뜻다란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로 구성해 이번 콘서트에서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문옥 40년 콘서트는 '가을의 노래', '우리 시대의 노래', '시간여행-77년 빈센트 고별 리사이틀', '새로운 출발'을 주제로 모두 21곡의 노래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 지난 40년 동안 박문옥과 음악을 함께 해온 소리모아 트리오 박태홍, 최준호와 MC 오정목, 객 정용주, 가수 박종화, 가수 류의남, 혼성 5인조 아카펠라그룹 The Present 가 특별출연하고, 광주 1세대 포크가수 국소남, 작사가 김순곤, 가수 김현성이 초대손님으로 등장한다. 전석 5만원. 문의 062-673-8601.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노벨상’ 이시구로 소설, 국내 베스트셀러

‘남아 있는 나날’ 등 판매 급증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가스오 이시구로(사진)의 책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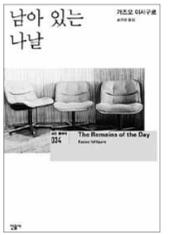
가스오 이시구로는 당초 영국의 도박업체 래드브룩스가 예측한 유력 후보군은 아니었지만, 우수한 작품성으로 인해 세계 독자들의 주목을 받은 작가다. 한국 독자들 가운데도 팬층이 형성될 만큼 그의 작품을 좋아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특히 1989년 발표한 ‘남아 있는 나날’은 부커상 소설 부문에 수상한 작가의 대표작이다. 전쟁과 피습으로 점철된 기억을 회상하는 늙은 집사의 이야기로 1993년 영화로도 제작됐다.

인터넷서점 인터파크도서에서 따르면 ‘남아 있는 나날’은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 6일 오전 당일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발표 직후 주문량도 전일대비 20배 이상 증가하는 등 독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나를 보내지마’는 3위, ‘녹턴’은 4위,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는 8위, ‘파문헌 거인’과 ‘우리가 고아였을 때’, ‘창백한 언덕풍경’은 각각 11위를 기록하면서 11위권내에 무려 7권이나 진입했다.

인터파크도서는 이시구로 소개 및 역대 수상작가 소개와 세계 3대문학상 대표작을 소개한 기획전(<http://bit.ly/2xXO6gR>)을 진행 중이다. 관련 도서의 상세 정보와 함께 기획전 도서 2만원 이상 구매 시 세계 명작 스카프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



교보문고는 온·오프 통합해 8일(12시 30분 기준) 가스오 이시구로의 책이 2200부 판매됐다고 밝혔다. ‘남아 있는 나날’, ‘나를 보내지마’, ‘녹턴’, ‘파문헌 거인’, ‘창백한 언덕풍경’ 순으로 인기가 있었으며 30대와 40대에서 가장 작품집을 구매할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24의 집계에서도 이시구로의 책의 판매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남아 있는 나날’과 ‘나를 보내지마’는 노벨문학상 발표 이틀만인 7일 일별 베스트셀러 1, 2위에 올랐다. 수상 전 1주일간 불과 6권에 불과했지만 이후 3일간 2616권이나 팔릴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이시구로는 2010년대 노벨문학상 수상자 중 발표 이후 3일간 책이 가장 많이 판매된 작가로도 기록됐다. 에스24에 따르면 엘리스 먼로(2013)의 책은 1114권, 파트릭 모디아노(2014년)의 책은 923권 판매됐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텔레만 서거 250년’ 브리지 비올라 앙상블 공연

내일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텔레만 서거 250주년을 기념하는 브리지 비올라 앙상블(사진)의 연주회가 열린다. 1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브리지 비올라 앙상블은 1996년 광주시립교향악단의 비올라 연주자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실내악단이다. 독일 등 해외에서 수학하거나 국내 대학원에서 공부한 후 일본과 중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에서 활동한 연주자로 구성돼 있다. 단원은 임경애, 송민주, 최미현, 신나현, 염성영 등 총 14명이다.

바흐, 비발디와 동시대에서 활동한 독일 바로크 음악 작곡가 게오르크 필리프 텔레만은 800곡 이상 작곡한 다작의 작곡가로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다. 그는 독학으로 음악을 익혔으며, 비올라나 트럼펫 혹은 오보에나 하프시코드가 함께 연주하는 협주곡으로 유명하다.

이날 공연에서는 텔레만의 ‘비올라 콘체르토’, 비발디의 ‘사계 중 가을’, ‘비올라 콘체르토’, 요코보엔의 ‘비올라를 위한 판타지’,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 등을 연주한다. 문의 010-2747-6575.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無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

NAVER 광주전남수목장 검색